



케노시스 (Kenosis): 나를 비워내는 삶 🫙 ✨

입으로 하는 신앙에서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으로



입으로만 하는 신앙? 🗣️

- 화려한 정치인의 공약과 뒤집힌 행동
-
- 방언 은사는 있지만 조카의 장례식(관 들기)은 외면한 권사님



삶으로 증명하는 신앙! 🏃

- ‘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.’
-
- 말과 속마음,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.

케노시스 (Kenosis) = 스스로 비움 🗑️



-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고집과 영광을 자발적으로 비워내는 것
- 그는 흥하고,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.



빌립보서 2:5-8 “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...”

케노시스의 3단계 행동 원칙



1. 나를 부인하고 (Deny)

내가 판단의 우선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선되는 삶



2. 내 십자가를 지고 (Cross)

넓고 편한 길이 아닌, 나에게 주어진 낮고 좁은 길 걷기



3. 예수님을 따르기 (Follow)

나를 위해 살면 잃고, 주를 위해 잃으면 찾는 역설의 삶 (마 16:24)

공장의 법칙: "투입한 시간이 결과를 만듭니다"



한국 공장

- 주 4일 근무 (휴일/연차 제외)
- 1년 200일 가동, 하루 20시간



베트남 공장

- 주 6일 근무
- 1년 300일 가동, 하루 22시간



조건(땅, 건물, 기계)이 같아도 100일의 시간 차이가 수익을 결정합니다.

신앙의 성장 = '절대적인 시간'의 투자 ⌚



- 교회, 가정, 지체라는 '공장 조건'은 이미 주어졌습니다.
-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.

기도 시간 + 선한 모임 + 헌신 = 케노시스의 정신을 유지하는 동력 ⚡

케노시스의 핵심 역설: 거꾸로 사는 삶 🙄



우리는 지극히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.

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 3인의 스토리

스스로를 비워 '작은 예수'가 된 사람들의 진짜 프로필을 열어봅니다.







손양원 목사

사랑의 원자탄 💣❤

가장 좋은 신학교(평양)를 버리고
가장 아픈 한센병 수용소(애양원)를 선택.

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낸
진정한 비움. 🩹

1948년 여순사건, 두 아들(동인, 동신)을
죽인 원수(안재선)를 양아들로 품은
케노시스의 극치.



다미안 신부 (벨기에 출신)

나의 형제들에서... 이제 우리 문둥병자들은 🌴👥

법도 질서도 없는 하와이 므로카이 섬으로 자원.

그들의 고통에 완벽히 동화되기 위해 스스로 나병에 걸리기를 기도.

1884년, 끓는 물을 발에 붓고도 고통이 없음을 알았을 때 오히려 감사한 사람.



짐 엘리엇 (1927-1956)

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. 소멸시키시옵소서 🔥

휘튼 대학 출신의 촉망받는 엘리트, 복음을 듣지 못한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향해 파송.

원주민들의 창과 칼 앞에서도 허리춤의 권총을 빼지 않고 죽음을 선택. 🩸🔫

세상은 "불필요한 낭비(Unnecessary waste)"라 비난했지만...



남겨진 십자가, 그리고 완벽한 역전



죽음: 5명의 선교사 순교



5년 뒤: 아내 엘리자베스
엘리엇의 헌신.
"나는 당신들이 죽인
그 남자의 아내입니다."



부흥: 부족 전체의 회심.
살인자 3명이 신학교를
졸업하고 담임 목사가 되다!

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,
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
결코 바보가 아니다. 💎📉

(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)

- 짐 엘리엇

케노시스의 최종 목적 지점 🎯

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
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
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
(빌립보서 2:11)



우리가 스스로를 완벽히
비워낼 때, 그 빈자리에 비로소
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집니다. 🙌

나는 누구인가? 어떻게 살 것인가? ...

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,
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'작은 예수'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.



지금, 당신의 삶에서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? ✨